‘싱숭생숭’ 내 마음, 음악으로 달래볼까

경남 불교계, 가을 한복판 음악회 및 축제 등 ‘다채’

구룡사, 가을 달빛 산사음악회와 백일장·사생대회·전시회 등 열어
대원사 등서 합창축제도 마련해



부산 경남 사찰과 단체들은 다채로운 음악행사를 마련하고 불자들을 초대했다. 사진은 작년 부산 파라미타 전국합창제 모습

깊어가는 가을, 부산 경남의 사찰과 단체들이 다양한 축제와 음악회를 마련하고 대중들을 초대한다.

창원 구룡사(주지 신공)는 창건 89주년을 맞아 10월 15일 구룡사 경내서 ‘창건 기념 법회 및 제4회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달빛 산사음악회’를 연다. 창건 기념법회는 오전 10시 설법전서 진행하며 음악회는 오후 7시이다.

이날 구룡사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 및 구룡은암장학금을 수여하고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펼친다. 음악회는 구룡사 우담바라 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가수 전영록, 박성철, 원더풀 중창팀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구룡사 산사음악회는 매년 각 신도회와 합창단 등 소속 단체들이 직접 축제를 주관하고 갈고 닦은 결과물을 선보여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바라밀 선다회는 오후 5시부터 경내 마당에서 두 리차회를 열고 구룡사를 찾는 이들에게 가을 찻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바라밀 꽃꽂이회가 마련한 아름다운 가을 꽃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구룡산사의 가을 정원’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작품 전시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범어사 포교원 대원사(주지 담화림)는 ‘대원선재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10월 22일 오후 7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서 개최한다. 대원선재합창단은 2015년 12월 창단해 현재 45명의 어린이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첫 발표회를 통해 음성 포교의 결실을 맺어가겠다는 의지다.

대원사는 “전법 도량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신도회를 창립하고 그 가운데 어린이 포교를 위한 합창단을 창단했다”며 “저희 대원선재어린이 합창단 활동에 격려를 부탁하며 발표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불교신도회(회장 김복광)는 울산 불자들을 위한 ‘제20회 울산불교합창축제-나누는 즐거움 함께하는 행복’을 10월 5일 오후 6시 KBS 울산홀서 연다. 이번 합창대회에는 한마음선원합창단을 비롯해 BBS 울산불교방송합창단, 백양사삼보합창단, 법륜사마야합창단, 월봉사월광합창단 등 울산 사찰 소속 합창단 단원 1500여명이 대거 참여한다.

울산불교신도회는 “합창단이 하나 되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울산 불교 또한 하나가 되고, 참가팀 뿐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함께 즐기고 행복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0월 8일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서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를 개최한다. 이번 합창대회에는 부산 대천중학교 대천 합창단, 경남 마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합창단, 서울 송곡고등학교 송곡마하나임 남성합창단 등 전국의 중고등학교 10여 개 팀이 참여해 경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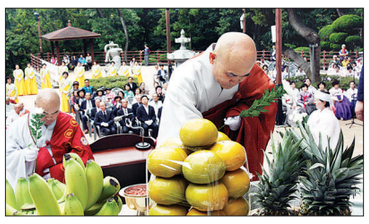
백명숙 협회장은 “합창을 통해 배려를 배우고 서로를 위한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살아 있는 교육”이라며 “매년 합창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부산 불교, 사명대사 호국 정신 잇다

9월 26일 사명대사 열반 제406주기 추모대재

부산불자들이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9월 26일 사명호국광장(초읍 부산어린이대공원 내)서 ‘사명대사 열반 제406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부산 불교는 매년 음력 8월 26일 사명대사 추모재를 봉행하며 호국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26일 사명호국광장서 ‘사명대사 열반 제 406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1부 부산영산재 보존회(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9호)의 호국영산대재로 문을 열어 2부에선 △육법공양 △호국발원문 낭독(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헌화 △사명대사 행장 소개로 진행됐다. 회장 경선 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불교 뿐 아니라 부산,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 모아 함께 함이 마땅할 것”이라며 “부처님 법을 실천함이 곧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 스스로 자비롭게 하는 길이다. 불교가 곧 온갖 생명을 길러내고 호법하고 호국하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나한 신앙, 공적 영역 발원으로 나가야”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19차 학술대회’서

청도 운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정토학회와 원광화랑연구소가 주관한 제19차 학술대회가 9월 26일 운문사 경내 선열당 시청각실서 개최됐다.

‘나한 신앙과 역사’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일진 스님, 한국정토학회장 최정인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제1주제 ‘청도 운문사의 나한 신앙 고찰’ 발제를 맡은 일진 스님은 “운문사의 나한 신앙은 현재 개인의 복을 비는 사적 영역서 중생구제와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공적 영역으로, 또 부처님 정법이 널리 퍼지길 발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도 운문사의 나한 신앙 고찰’을 주제로 발제 중인 일진 스님.

앞서 1부 순서서 명성 스님은 “고승대덕스님이 머무신 유서 깊은 교육도량에서 ‘나한 신앙과 역사’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발표자 및 토론자 뿐 아니라 참석한 대중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관음사, 회주 지현 주지 영산 스님 취임

부산 관음사가 ‘회주 추대식 및 주지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전법 도량으로 나아 갈 것을 서원했다.

관음사는 9월 27일 관음사 경내 원통보전서 지현 스님을 회주로 추대하고 새 주지 영산 스님의 취임을 알렸다.

회주 지현 스님은 “끝까지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울 것”이라며 “사부대중도 마음 모아 함께 불사에 동참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영산 스님은 “절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사부대중”이라며 “이와 같이 알고 노력하며 마음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영산 스님은 통도사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 사회복지법인 자비원 원장, 통도사 율원 율감, 교수사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관음사는 ‘회주 추대식 및 주지 취임 법회’를 9월 27일 봉행했다.

안국사, 창원 도심포교 도량으로 ‘재탄생’

9월 22일 옛 39사단 군법당 안국사 폐사 고불식

폐사 위기에 처했던 옛 39사단 안국사가 창원 도심 포교 도량으로 재탄생한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9월 22일 ‘통도사 창원전법도량 안국사 폐사 고불식’을 안국사 법당서 봉행했다.

안국사는 1990년 옛 육군 39사단에서 군법당으로 건립 된 후 25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해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고 신도시 건설로 인해 기존 안국사는 폐사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과 통도사, 창원 불교계의 지속적 노력으로 새롭게 법당을 불사하고 신도시 포교 전법도량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통도사는 앞으로 신도시 건설 지역서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총 2000㎡ 부지를 마련하고 2019년 10월까지 2층 법당과 요사채 등을 불사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 연말 도시계획이 확정 된 후 내년 상반기 착수한다.


통도사는 9월 22일 ‘통도사 창원전법도량 안국사 폐사 고불식’을 안국사 법당에서 봉행했다.

고불식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총무국장 도문 스님,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및 구룡사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대중들은 폐사 위기에도 안국사를 묵묵히 챙겨온 주지 정오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군포교 전당 안국사 군법당이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따라 폐사됨을 눈물로 부처님께 아뢴다. 하지만 신도시 포교를 위해 새롭게 창건하고자 함을 기쁨으로 또한 고한다”며 “다행히도 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도량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여러 불자님들의 기도와 소망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은 “창원시민과 불자님들이 새로운 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이젠 새롭게 불사될 안국사 건립을 위해 마음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 이전

9월 28일 이전 개소식 개최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 대표 무원)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9월28일 부산 진구 동평로(양정청소년수련관 옆) 새 사무실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 대표 이사 무원 스님, 혜총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최주덕 삼광사 신도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무원 스님은 “남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으로 시작했다. 흩어져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재를 지내는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도 확대 동참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가 9월28일 부산 진구 동평로 새 사무실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짙어가는 가을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에서 힐링과 함께 자연의 지혜를 담은 고은 사찰발효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축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10:00~18:00

장소 | 고운사 대웅전 옆 마당

주최 고운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관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의성군

주요행사
- 사찰음식 체험 및 무료 시식회
- 사찰음식 전시행사·고운 소식, 소찬의 향연
- 전통사찰의 차 시연
- 16교구 말사들의 사찰음식 체험행사
- 의성군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 세미나-사찰발효음식의 현황과 산업화 방안
- 산사음악회 : 현숙, 김종환, 이애란, 라아킴, 류기진, 박태일, 구나운, 규리 출연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http://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834-6934 팩스 054-834-6935


김소희셰프
고운사 사찰음식체험

천년 솔 향 가득한 사찰음식전문 특화사찰

고운사 알콩달콩 템플스테이

■ 일반프로그램 ■

▶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체험형): 타종체험, 예불, 108배, 참선, 선체조, 단주만들기, 송림 숲 걷기 명상, 사찰음식체험(둘째날 점심) 등
참가비(1박2일): 성인-6만원, 학생-5만원

▶ 솔향을 찾아서(휴식형):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참가비(1박2일): 성인-5만원, 학생-4만원

▶ 참가자를 위한~(맞춤형 당일체험): 명상, 단주만들기, 스님과 차담 등
참가비: 1만원~3만원(프로그램내용에 따라 협의)

※ 사찰음식체험은 5인 이상일 경우 가능, 휴식형, 당일체험은 재료비 별도

■ 2016년 가을 행복만원템플스테이 ■

만원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참가비: 1만원
참가기간: 2016년 10월24일~11월6일 중 1박2일
예약기간: 10월10일부터 마감까지 (정원 50명, 입금 선착순)

■ 고운사 사찰음식축제/ 산사음악회 ■

웰빙과 힐링이 되는 음식과 축제!
일시: 10월 8일(토) 10:30~18시

문의 : 054-833-6933 www.gounsa.net